

이홍재의 세상만사



용(龍)과 기린(麒麟)은 상상 속의 동물이다. 여기에서 기린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기린이 아니다. 몸은 사슴 같고, 꼬리는 소 같고, 빛깔은 오색찬란한 동물이다. 수컷을 ‘기’ (麒麟)라 하고 암컷을 ‘린’ (麟)이라 한다는 옛 기록이 있다.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기린아’ (麒麟兒)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기린은 훌륭한 함을 상징한다. 반면 자질이 좋지 못하여 기대할 것이 없을 때에는 ‘우마(牛馬)가 기린 되랴’라고 하였다. (요즘의 박근혜 대통령에 딱 들어맞는 속담이지 않나 싶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몰랐다.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온 국민이 속았다. ‘미꾸라지 천년에 용 된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억겁의 세월이 흐르나 해도 어찌 미꾸라지가 용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몰랐다. 그녀가 설마 우마에 불과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지금 온 국민이 하릴없이 낭패에 빠진 것도 다 그 때문이다.

‘낭패’(狼狽) 또한 상상 속의 동물이다. ‘낭’(狼)

과 ‘패’(狽)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모두 ‘이리’로 나온다. 그러나 본래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낭’은 뿔다리 두 개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짧고, ‘패’는 앞다리 두 개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짧다. 그래서 이들이 걸을 때에는 ‘패’가 늘 ‘낭’의 등에 앞다리를 걸쳐야 한다. 둘이 합쳐야만 걸을 수 있지 떨어지면 그 즉시 꼬꾸라진다.

‘낭’(狼)은 지모(智謀)가 부족한 반면 ‘패’(狽)는 반대로 꾀가 뛰어나다. 그래서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먹이를 사냥할 때면 낭은 언제나 패의 지시를 따른다. 그런 까닭에 낭은 기꺼이 패를 등에 태우고 다닌다. (낭과 패의 의미를 살피다 보면 또 박근혜와 최순실이 연상되지 않는가.)

쇠도 녹이는 못사람의 말

이들은 서로 도와 공생하다가도 뜻이 맞지 않으면 바로 틀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낭과 패 모두 걸을 수 없고 먹이를 사냥할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둘 다 곤경에 빠진 상태가 바로 흔히 비유적으로 쓰는 ‘낭패’라는 단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박근혜와 최순실 중 누가 더 교활한 사람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한때는 원칙과 신의의 정치인으로 각인된 적도 있는 박근혜에게서 교활의 이미지를 끄집어내기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긴 하다. 하지만 그동안 탄핵에 대처하는 여러 수법과 ‘거짓 사과’ 등을 볼 때 그

가 최순실보다도 훨씬 더 교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보니 ‘교활’(狡獪) 또한 상상 속의 동물 이름이다. 개 모양에 쇠뿔을 달고 있는 ‘교’(狡)와, 생김새는 사람인데 돼지털이 나 있는 ‘獪’(獪)은 어찌나 간사한지 여우를 능가할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길 가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조그만 공처럼 변신하여 제 발로 호랑이 몸속으로 들어간 뒤 내장을 마구 파먹는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가 죽으면 그제야 유유히 밖으로 나와 미소를 짓는다. 여기에서 바로 그 ‘교활한 미소’라는 관용구가 생겨났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원 플러스 원(1+1) 대통령’(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상품을 진열대에서 빼내 쓰레기통에 넣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끼워 주는 이벤트 상품’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1년도 더 남은 시점에서 심하게 부패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써야 약취가 진동하는 이 상품을 반쯤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분연히 일어났다. 수백만 국민이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과 즉각 퇴진을 외쳤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국회는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관문인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 혁명’을 보면서 새삼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는 ‘중구삭구’

(衆口鑠金)의 의미를 실감한다. 이 말은 지금 여론의 힘을 강조할 때 쓰이지만 원래부터 그런 뜻이었던 것은 아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이 남긴 기록을 보면 ‘못 간신의 입이 쇠를 녹이구나!’라고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말은 본디 간신들의 말에 임금이 속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떠오르지 않는가.)

떡 줄 사람 생각도 없는데

중구삭구 이야기는 삼국유사에도 나온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부녀 앓아간 죄/ 얼마나 클까/ 네 만일 거역하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고 말리라.” ‘해가’(海歌) 또는 ‘해가사’(海歌詞)라고 하는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다.

신라 성덕왕 때 철세미인이었던 수로부인이 동해안을 지나는데 돌연히 용이 나와 바닷속으로 납치했다. 이때 지나가는 노인이 “예로부터 못사람의 입길은 쇠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모를지기 백성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지팡이로 땅을 치면 마땅히 부인을 되찾을 것이요”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인 순정공 일행이 ‘해가’(海歌)를 부르며 그대로 따라 하니 용이 부인을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도 당시 백성들이 땅을 치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무능한 대통령에게 빼앗긴 대한민

국의 주권을 찾기 위해 광화문으로 금남로로 뛰쳐나와, 지팡이 대신 촛불을 들고 ‘하야가’(下野歌)를 불렀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의 탄핵 심판이다. 한때 현재의 인용(認容)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안에, 아마도 탄핵으로 결정 나리라 확신한다.

문제는 탄핵 이후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며’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이 갈라져 이제 다당 구조가 확실해졌지만 한때 ‘부역’했던 저들의 근본이 바뀌는 것도 아닐 터.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반복되는 과거 역사가 그것을 말해 준다. 우선 4·19 혁명의 결과로 하정 고도 내각을 거쳐 제2공화국이 탄생했지만 끝내 박정희 군사 쿠데타의 빌미를 주고 말았다. 5·18 민중항쟁 역시 피로써 민중의 결집된 힘을 보여 주었지만 전두환의 집권을 막지는 못했다. 6·10항쟁의 결과로 얻은 ‘직선제’ 역시 야당의 분열로 노태우에게 대통령 자리를 헌납하고 말았다. 엇그제 서울에서 만난 박지원 의원(국민의당)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지만 ‘죽 썬서 개 주는’ 이런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필)

“인사 탕평·남북 화해 이끌 새로운 지도자 필요합니다”

김희중 히지노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성탄 메시지

평화적 촛불집회 연대·지지

7대 종단 대표들 앞장서기로

“우리나라 새 지도자는 정파·출신을 떠나 국토 균형발전, 인사의 탕평책, 남북간 평화와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나를 따르라’가 아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습니다.”

김희중 히지노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 22일 광주대교구청 1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대주교는 “요한 묵시록 21장 5절에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듦다’고 하셨다”며 “예수님은 어둠을 빛으로,



서는 “촛불집회가 폭력적이지 않고 성숙하게 평화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새롭게 밝히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빛나는 결의로 타오르고 있음에 절로 숙연해진다. 그 결의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7대 종단 대표들이 모여 집회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보편적 사람을 펼치셨다”고 전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촛불집회가 폭력적이지 않고 성숙하게 평화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새롭게 밝히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빛나는 결의로 타오르고 있음에 절로 숙연해진다. 그 결의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7대 종단 대표들이 모여 집회가

평화적으로 잘될 때는 지켜보지만 심각해지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전부 앞장서자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종교는 정치에 대해 나아가야할 총론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윤리성을 지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종교의 역할을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만남 횟수를 늘려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중지됐지만 천주교회에서는 인도주의적 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더 배려하고 국가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좀 더 책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22조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 등 낭비요소를 줄인다면 재정적 뒷받침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광주 군 공항내 이전 유력

박병호 부시장 “공항 이전까지 한시적… 전일빌딩 원형 보존”

광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다.

광주 공군공항 공군부지 내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방부가 방공포대 이전 대상지를 시에 문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시장이 후보지로 광주지역 내 3곳을 언급했지만 군 공항 이전까지 한시성을 전제로 광주 군 공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고 평지도 작전상 큰 무리가 없다는 점, 대체 부지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 등 장점이 크다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 공항에 방공포대 등 기피시설만 모아놓은 셈이 될 수 있어

공항 주변 주민의 반발 우려된다.

무등산 정상 천왕봉(해발 1187m)에는 공군 제8989부대 예하 3포대가 1966년부터 주둔해 있다.

광주시와 지역사회는 무등산 군사시설이 국립공원인 무등산을 해치고 시민의 정상 접근권도 막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국방부에 이전요구를 지속해서 해왔다.

한편, 박 부시장은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확인된 광주 전일빌딩 현장을 대한 원형 보존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부시장은 “내년 1월 국립과학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5월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7월까지 원형 보존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국내의 사례 조사 등도 병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전일빌딩 현장을 찾아 사적지로서 보존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정부 ‘김영란법’ TF 회의

어린이집 교사 적용 제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정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침’ TF는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조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이른바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법인·단체의 대표를 포함되지만,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령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번 유권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 무등록자는 파헤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교수초빙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원을 초빙합니다.

제	학	인	전	비
요	과	원	공	고
구			분	
분			야	
계약제				-박사과정 3학기 이상인 자
전 임	간호학과	0명	간호학	-임상(종합병원) 또는 관련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교 원				

접수기간 2017. 1. 5.(목) ~ 1.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ac.kr) 교수초빙 공고 참조

동 강 대 학 교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 우수기업 성공스토리 발간

총 33개 기업의 성공스토리를 담은 '2016전남지역산업 우수성공사례집 마중물' 발간

전남테크노파크(원장 김병임)는 전남지역 우수기업의 성공사례를 엮은 '전남 지역산업 우수성공사례집 마중물'을 발간하였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지역 주력산업인 금속소재·가공산업, 바이오식품산업,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산업, 에너지 설비산업과 경제협력관선산업인 바이오활성소재산업, 조선해양물류연선산업, 나노융합소재산업 등 7개 분야의 33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과 창출 과정을 담아내었다.

우수성공사례집을 기획한 전남테크노파크의 이재일 기업지원단장은 다양한 전남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이 소개되어 있는 이번 '마중물'을 통해 더욱더 많은 전남 지역 내 제조기업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이번 사례집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의 우수성공사례집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집중 배포되어 전남지역산업 우수기업의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